“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하라”

종교편향특위·범종교개혁시민연대
6월 10일 서울시의회서 기자회견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 등 촉구
폐기 염원 서한 전달 · 침묵 명상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6월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담고 있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6월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간 종교편향특위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교 운동장과 수련관 등 공공 교육시설을 행사 참가자 숙소로 활용하고, 시설 복구 비용까지 공공 재원으로 지원한다”며 공공자산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과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조례안 폐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안은 폐기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과 탄보·상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실천불교승가회, 조계사 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단체와 정태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 박광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등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소속 종교·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회는 특정 종교 편향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 중립 의무를 다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제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라며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즉각 폐기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해체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 등을 촉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세계청년대회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추계 전 항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종교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향후 종교 관련 조례에 대한 정교분리 영향 평가와 종교 간 형평성 검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제11대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한다. 해당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될 경우 즉시 폐기되며,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더라도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 자동 폐기된다. 다만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재발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화 스님은 “청년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만을 위한 제도화가 문제”라며 “향후에도 조례안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 이후 의장단과 만나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도 “종교 행사에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국민과 납세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정치권 차원 논의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의회 앞에서 약 40분간 조례안 폐기를 염원하는 침묵 명상을 진행했다.

종교계·정부, 한반도 평화에 ‘최선’

1면에서 이어짐

종교계 통한 남북교류 ‘기대’

정부는 장기간 위축된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교계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통일부가 주관한 7대 종교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전국 하나센터(25곳)와 종교계 간 연계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북향민 자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향민’ 명칭 사용을 통한 인식 개선에도 종교계의 동참도 요청했다.

정부는 남북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종교계가 평화 담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계종은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 묘향산 보현사 탑등을 봉축등으로 구현했다. 4월 8일에는 강원 고성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해 한반도 평화를 발원했다. 천태종도 나누며하나되기를 통해 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대상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운영과 위문품 전달 등 10여 년간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통사찰 방재 대책 마련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운람사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통사찰과 사찰림을 지키기 위한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산불 및 화재 대응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불교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산불 대응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TF를 구성해 내년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안전부 등과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올해 5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사찰림 보호 및 산불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정비를 통해 사찰 주변 25m 이격공간을 확보하는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35개 사찰의 신청을 받았고, 현재 6곳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사찰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 · 전승은 과제로

다만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은 시설 관리를 넘어 국가유산 보호와 문화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문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많은 사찰이 실제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 등으로 묶여 있어, 노후 전각을 개보수할 때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해석과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 관리·환경 정비 등 공공 서비스 부담은 여전히 개별 사찰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보수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국보·보물급 문화유산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조계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김상욱 당선인, 진우 스님 격려에 감사

6월 10일, 진우 스님 예방자리서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 이끌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거 과정에서의 격려와 기도에 감사를 전하고, 당선 이후에도 하심의 자세와 수행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당선인은 6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로 만행하듯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큰 욕심 없이 진솔하게 울산 시민들에게 다가간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비행기가 양쪽 날개로 균형 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입장의 장점을 조화롭게 살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시의회 등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직할교구 포살법회…“포교·전법” 당부

6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서
총 219명 ‘수행 정진’ 전념



불기 2570년 병오년 하안거 정진이 5월 31일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제1차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6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안거 첫 포살법회를 열었다. 이날 포살법회는 서울 및 수도권 사찰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조계종 직할교구 소속 스님들이 그간의 수행을 돌아보고 계율 준수를 점검하는 자리다.

포살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보살계를 배우고 독송해야 한다며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봉독하고 계율 준수와 수행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소참 법문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며, 포교·전법과 수행 정진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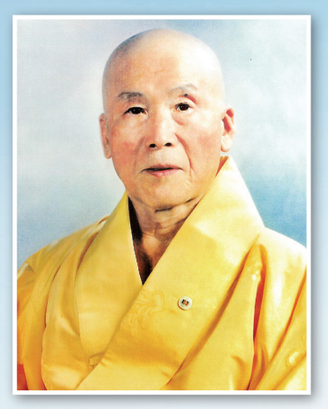
포살법회에 참석한 직할교구의 비구 스님 71명과 비구니 스님 148명 총 219명은 장궤합장 한 채 정진의 뜻을 되새겼다.

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안거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 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30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오도송

맑은 허공에 새털이 떨어지고
고기가 뛰니 수면에 물결이 인다.
새의 털 하나 떨어지지 않고 물살 일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한 가지의 꽃을 들고 법을 설하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열반송

뱀이 화하여 용이 되어 뿔이 하나가 났는데
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 만인이 놀라네.
남쪽성에 새봄이 오니 마군이 기운 다 없어지고
북쪽령에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 온다.

일 시 : 불기2570(2026)년 6월 23일 화요일(음5월9일) 오전 11시
장 소 : 일붕선원 대법당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 8904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봉행위원회